

<전 과목 공부법 칼럼_국어 수학 영어 영역 편>

by 박동현 (서울대 수리과학부) -수능 원점수 395점 -수만휘 과수, 칼럼 활동 -독학재수학원 공부법, 커리큘럼 멘토

목차

1. 서두
2. 공부법이란
3. 공부의 독, 인강
4. 인강 듣는 법
5. 모든 과목의 공통적인 공부법
6. 본론 (각 과목별 공부법)

< 서두 >

갓 익은(?) 수험생으로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공부법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굵어모아서 진심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수능은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공부시간과 성적이 정비례하는 학교내신시험이나 과거의 학력고사는 많은 문제를 풀고 많은 유형을 암기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수학능력시험은 매년 신유형, 고난이도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직접 공부를 하면서 터득하게 된 '수능'이라는 시험에 맞는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공부법이 아닌 다른 공부법으로 점수를 올리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르비, 포만한등의 입시사이트에서 여러 공부법을 찾아 비교해보는 건 시간낭비입니다. 초기에 몇 가지 공부법만 적당히 알아보신 다음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쓴 공부법을 100% 따르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해서 공부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글에서 3가지를 계속 반복하며 강조할 겁니다. 글을 읽다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표현만 달리 한다는 느낌이 드시게 될 겁니다. 그 똑같이 반복되는 말들이 제가 학생 분들께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자, 성적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인강과 수업은 절대 공부가 아니다.
2. 평균이 되지 말자. 제발 반복하자. 복습하자. 여러 날짜에 걸쳐서.
3.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자

수많은 공부 멘토들이 TV나 신문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드세요.” “반드시 복습하세요” 등의 뻔한 말들을 늘어놓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뻔한 소리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저는 돌려 말하거나 모호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부법이란 >

먼저 공부법이란 1년의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공부의 ‘방법’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인강을 들을까, 어떤 교재를 구매할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고민거리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되어야합니다. 누구나 1타 강사의 인강을 듣고, 유명한 단과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든 학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인강을 듣고 학원을 다니는 건 평타치는 겁니다. 수험생들의 ‘평균’이라는 소리입니다. 평균이면 점수 ‘유지’입니다. 인강을 듣는 학생의 대부분은 인강을 듣고 연습문제를 풀고 필기내용을 복습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는 평균적인 공부를 하고 점수상승을 기대하는 건 모순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하는 평균적인 공부이고 점수 유지를 위한 공부였고, 점수상승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법이 병행되어야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국어 기출문제집 ‘마르고 닳도x’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고치고 필기하는 것 까지가 평균적인 공부입니다. 이 책을 산 사람들의 ‘평균’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성적상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부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오르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점수상승을 위한 자신만의 추가적인 공부, 그것이 바로 ‘공부법’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따라해야하는 절대공부법 같은 동화 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인강과 교재들의 콘텐츠를 ‘어떻게’ 공부할 지를 고민해보세요.
그게 성적을 올리는 법입니다.

< 공부의 독, 인강 >

밑에 구멍이 뚫린 화분은 위에 엄청 좋은 물과 영양분을 부어도 어차피 다 새나갑니다. 본인이 흡수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화분 밑바닥에 흙을 쌓으면 쌓을수록 물을 부었을때 물의 흡수되는 양이 증가하고 빠져나가는 양이 감소합니다.

물 = 인강

흙 =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으로만 화분을 채우셔도 되고, 흙으로 채우면서 적절히 물도 주고 영양분을 주면서 화분을 채우셔도 됩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화분을 흙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더 이상 좋은 물과 각종 화려한 인강에
현혹되지 마세요.

본인 공부가 먼저고

보조로 인강이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마세요.

물론 등급대가 7등급이하 정도인 분들이라면 스스로 흙을 채우는 방법을 배우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배워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인강이나 수업이 별도로 병행 되어야할 필요는 경우에 따라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강 듣는 법>

저는 수학이든 과탐이든, 모든 영역에서 인강을 듣기 전에 항상 예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몇몇 인강 선생님들께서 개념 인강은 예습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데 저는 그 분들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인강은 절대 같은 집중도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집중도의 템포 조절(?)이 필요한데 이는 수업에 대한 예습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습을 하고 인강을 듣게 되면 수업내용이 기다려집니다. 집중도를 바꿔가며 인강을 들으면 공부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나오는 자신이 모르는 내용들과 중요한 내용들이 머리에 더 오래 각인됩니다. 남들보다 다르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인강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개념인강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인강교재에 나오는 용어를 ‘암기’하고, 필요에 따라 바이블이나 하이탑을 추가해서 독학으로 개념을 암기하고 수업 때 ‘이해’해야지, 수업시간에 개념 정의에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선생님의 말은 점점 머릿속에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과목별로 인강의 예습방법은 차이가 있으니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할 때는 하루에 몰아서 복습하지 말고 여러 날에 걸친 복습을 해주세요. 인강을 듣고 저녁에 연습문제를 풀고 필기복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손 운동한 겁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형식상의 복습을 한 셈이지요.

제가 모 인강을 들었던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강마다 방법은 조금씩 차이는 존재합니다. 만약 화요일 날에 과탐 개념인강 1강을 듣는다고 치면, 일단 월요일에는 인강교재에 나온 개념을 혼자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이탑이라는 책으로 1강에 해당하는 단원을 예습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월요일에 읽었던 하이탑 부분을 변화된 시각으로 다시 공부합니다. 당일 은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는 개념인강에 실린 몇 문제 안 되는 유제들을 풀어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인강 교재의 내용을 복 이렇게 공부하면 양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사실 하루에 몇 십분 이내로 공부한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 자극을 주는 것이지요. 만약 인강을 하루에 1강씩 듣는다면 이런 형식이 되겠지요.

월	화	수	목	금	토
1강 예습	인강 1강	1강 유제	인강교재 복습	예습교재 복습	
	2강 예습	인강 2강	2강 유제	인강교재 복습	예습교재 복습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바로 누적복습입니다. 다음날에 한번 복습하는 건 그냥 암기테스트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날, 다음 주만 되도 기억의 절반이 가물가물해 집니다. 인강도 체계적으로 들어야합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드린 5일씩의 공부를 따라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예습이 오래 걸리는 인강이 있고 복습이 오래 걸리는 인강이 있습니다. 날짜나 방법은 개인마다 당연히 달라야 하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1타강사의 어떤 인강을 들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고민하세요.

이 글을 읽고 어떤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날 공부한 내용은 무슨 요일까지 복습해야 하나요?”

이 분은 아직 제 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능동적인 공부’입니다. 같은 파트를 공부해도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 이걸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파트를 공부한다고 느껴지면 복습일자를 늘리면 되고, 쉬운 부분을 공부하고 있으면 복습을 하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만의 공부’를 하세요.

<모든 과목에서 사용한 공통적인 공부법>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반복하세요.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복습할까’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습은 다음날 한 번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평타치는 겁니다. 복습은 과목마다 분량과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방법이 약간씩 달라야합니다. 내용이 많은 파트는 반복횟수와 방법을 달리해주면서 본인 스스로 능동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써드리는 방법은 ‘복습’을 하기위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제 방법을 100%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복습’을 따라해 주시되 방법은 달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분량도 물론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르는 내용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른데 복습의 횟수와 시간, 그리고 방법이 같을 수가 없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과목에서 3가지 볼펜을 이용해서 공부했습니다.

1번: 낯인 문제에 필기하는용

2번: 실력 문제에 필기하는용 (모르는 개념 등)

3번: 맞긴 했는데 돌아가거나 버벅거려서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에 필기하는용

저는 모든 과목에서 3가지 볼펜으로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필기한 내용을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요약해 해서 적습니다. 또 그 다음날에 그 노트에 쓴 내용을 읽으며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까먹을 것 같은 필기내용들은 따로 체크를 해서 주말에 노트에 모아서 가볍게 스캔하며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다시 한 번 노트를 복습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의를 듣고 필기해서 그 다음날 복습하고 끝낸다면 그중 얼마만이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무조건 반복하세요.

반복안하면 기껏 공부한 시간과 필기한 내용들이 무의미해집니다. 남들 듣는 강의를 듣고, 숙제도 다하고 분명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평균치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하는 방법을 저는 위와 같이 했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인마다 당연히 방법은 달리해도 됩니다. 개인에게 맞게 복습날짜를 정하고 양을 정하고 방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제 방법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꼭 '복습'을 해주세요.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공부를 점수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복해야합니다.

문제집을 '많이'푸는 게 공부를 '많이'하는 건 아닙니다.

반복하세요.

제 방법을 100% 따르지는 마세요.

본인 스스로 분량과 시간을 정하세요. 본인이 제일 잘 알겁니다.

반복하세요.

각 과목별 세부적인 반복 학습법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론 - 국어영역 공부법 >

-기출문제 공부법

4등급이상의 점수가 한번이라도 나왔다면 제대로 된 자율학습으로 기출을 분석하여 100점까지 가능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올해 수능 100점을 맞았습니다. 국어영역에서 인강은 ‘필수’가 아닌 ‘보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이 기출을 분석한 뒤에 듣는 인강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팁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인강에 의존하거나 기출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어영역 기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기출문제 32회분이 수록되어있는 마르고달도x(마달)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평가원 기출문제와 해설이 있는 책이라면 다 괜찮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마달이라는 책의 해설이 좋았습니다. 문제 푸는 양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시간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모의고사 한회 or 반회, 둘 중 하나를 맘대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제 방법과 분량을 100%따르지 마세요. 개인에 따라 유기적으로 수정해가면서 공부해 주세요. 참고로 등급이 낮을수록 1회독을 할 때는 진도를 스피드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어영역이라는 시험에 익숙해져야지 자신이 모르는 내용과 아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기출문제 책은 최소 2번 이상 풀 겁니다.

일단 책을 처음 풀 때(1회독)는 시간재서 푼 다음에, 바로 채점하지마세요. 채점하지마시고 푼 문제 중에서 헷갈렸던 선지들과 답이 2번이라서 보지 못한 3,4,5번선지를 다시 풀어보세요. 답을 알고 선지를 보는 것과 답을 모른 상태로 선지를 보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답을 알면 그때부터 색안경을 끼고 선지를 읽기 시작하거든요. 채점하기 전에 초별구이(?)를 해서 헷갈리거나 모르는 선지 앞에 체크를 한 다음에 채점하세요. 그리고 마달의 꼼꼼한 해설지를 보면서 모르거나 헷갈렸던 부분에 밑줄을 긋고 틀린 이유와 몰랐던 내용들을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네이버도 찾아보고 질문도 해보면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뭐 개인의 취향입니다만 저는 필기를 할 때 저한테 가르치듯이 필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문학을 틀리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만 보고 이렇게 추론해서 답을 내면 안 된다.’ 등의 필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머리에 더 잘 각인되었는데, 물론 케바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제일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적은 내용을 그 다음날 국어공부하시기전에 반드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날 틀린 내용과 밑줄 친 부분, 필기내용을 복습하지 않고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지 마세요. 그 전날 공부한 게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성적은 계속 제자리걸음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그 다음날 말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트를 이용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필기한 내용들을 그 다음날 한 번 더 요약해서 노트에 요점만 정리해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복하구요. 물론 방법은 개인마다 달리해도 좋으니 복습을 꼭 해주세요. 정말로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절박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반복하세요. 문제 푸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풀었던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32회분의 모의고사를 다 풀면 이제 2회독(2회독 이상)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문제를 풀 때 역시 이번에도 시간을 재고 푼다. 1회독을 푸는 방식을 따르되 이번에는 추가적인 공부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고정 1등급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1회독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2회독 때 하는 게 공부효율이 더 좋을 겁니다.) 추가적인 공부 방향은 밑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강이나 수업

개념의 버터플라이효과와 훈련도Gam같은 훌륭한 인강,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출문제 16~20회 분정도를 먼저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난 다음에 인강을 활용해주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인강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념인강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인강 교재에 나오는 용어를 ‘암기’하고 수업 때 ‘이해’해야지, 수업시간에 용어 정의에 집중하면 선생님의 말은 점점 머릿속에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명심해주셔야 할 것이 절대 인강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출이 우선이고 인강은 천천히 가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일주일에 10시간 공부한다면 인강은 3시간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인강을 안 듣고 저처럼 기출문제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파트별 추가적인 공부법

1. 화법과 작문

헛갈렸던 선지와 오답률이 높은 선지(해설지에 써있습니다)를 분석하세요. “왜 그런 선지를 냈을까? 어떤 부분에서 낚시를 걸었을까? 뭘 바꾸면 정답선지가 될까?”를 고민해보세요. 평가원의 노림수를 파악해 보세요. 안보이면 3회독까지 계속 시도하세요. 인강에서 알려주는 내용 받아먹는 것보다 스스로 추론해보는 것이 실제 시험 볼 때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날에는 긴장 되서 화법과 작문이 더럽게 안 읽힙니다. 아침마다 화법과 작문 1~2지문정도의 문제를 실전처럼 시간재고 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문법

기출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개념들을 나올 때마다 끝장내세요. 뒤로 미루지 말고 모르는 개념이 나올 때 확실히 그 부분은 네이버를 찾아보든지 개념서를 찾아보든지 해서 정복하세요. 그리고 EBS문법문제를 추가적으로 조금씩 병행하세요. 문법파트가 약하시다면 10강 이내의 짧은 인강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문법 개념서에 나오는 문법 설명들을 종이에 직접 써가며 말로 설명해보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해보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세요. 그게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복습은 기본이겠죠.

3. 비문학

채점한 뒤에, 풀었던 비문학 지문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세요. 지문을 읽으면서 “아아 그렇구나” 하시면서 읽어 내려 가다보면 결국 문제 풀 때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느라 헤맸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읽으면서 “1단락은 화제제시 2단락은 추가설명 3단락은 새로운 화제제시 4단락은 해결책”, 이렇게 머릿속에 잔상이 날 수 있도록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해주세요. 공부할 때는 필기를 하면서 읽어도 됩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없으므로 머릿속으로 해야겠지요. 긴장되는 수능시험장에서 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도, 내용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라도, 제시간에 정답은 찍기 위해서는 문제를 읽고 단서가 지문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빠르게 파악해서 찾아가야하는데, 이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헛갈리는 선지와 오답률이 높은 선지(해설지에 써있습니다)를 분석하세요. “왜 그런 선지를 냈을까? 어떤 부분에서 낚시를 걸었을까? 뭘 바꾸면 정답선지가 될까?”를 고민해보세요. 평가원의 노림수를 읽어보세요.

추가적으로 인강 사이트에는 고난이도 비문학 인강이 있습니다. 어려운 철학이나 기술지문들에 대한 강한 트레이닝을 원하신다면 인강 교재를 구매해서 별도로 공부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4. 문학

EBS에서 문학파트만 골라서 조금씩 분량을 나눠서 풀어보세요. 이때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EBS 문제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틀려도 그러려니 하세요. EBS 문학문제를 푸는 건 EBS의 문학작품 내용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점을 하고 기출문제처럼 문제 분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학문제를 푸시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쪽 스캔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주제와 전체줄거리도 배경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읽어두세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문학을 풀 때 선지에 모르는 표현과 애매한 표현이 꽤 있을 겁니다. 섹채대비, 시간의 역전적 구성 등등 시험지에서 정확히 언제 그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밑줄을 긋고 해설지를 읽어보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각종 인강사이트 국어영역 선생님들한테 질문해보세요.(인강 안 들어도 질문답변 해줍니다.ㅎ)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로 헷갈리는 선지와 오답률이 높은 선지(해설지에 써있습니다)를 분석하세요. “왜 그런 선지를 냈을까? 어떤 부분에서 낚시를 걸었을까? 뭘 바꾸면 정답선지가 될까?”를 고민해보세요. 평가원의 코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고전문학의 해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고전문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다만 인강에 의존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남이 떠먹여 주는 개념은 절대 스스로 고민하기 전까지는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고전시가의 모든 것’과 같은 고전문학 자습서를 하루에 작품 수를 정해서 스스로 설명을 보며 해석해나가는 것입니다.

시나 소설을 읽는 법을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며 본인에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인강을 듣는 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강에서 알려주는 방법들은 ‘참고’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면서 터득해 나가세요.

-EBS활용법

위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EBS에서 비문학은 푸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남을 때 여가생활로 즐겨주세요. 문학은 배경지식 확장 및 연계 대비로 전 문항을 조금씩 나눠서 풀어주세요. 방법은 위에 쓰여 있습니다. 문법도 풀어주세요. 문법은 공부하듯이 푸시면 됩니다. 화법과 작문도 비문학처럼 여가생활로 생각해주세요.

< 본론 - 수학영역 공부법 >

- 개념 공부법 (3등급 이상)

개념 공부법은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구분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권 대상 개념 공부법입니다. 일단 수학 개념서, 개념인강, 문제집을 가지고 개념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개념서 추천: 수학의 바이블, 숨마쿰라우스) (문제집 추천: EBS 수능기출풀리x - 양이 적어서 좋다). 일단, 여기서 1등급 분들은 “내가 개념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여기는 단순한 공식 따위의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은 공식이 아닙니다. 정의내리기 어렵지만 개념이라는 것을 억지로 정의해보자면 ‘공식까지의 도달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까지의 과정을 알게 되면, 공식만 알았을 때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접근 방법들이 보이게 되는 이른바 ‘실전개념’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물론 공식까지의 과정 외에도 ‘실전개념’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인강을 듣거나 문제풀이를 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부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강 듣는 법과 유사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공통적이어서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화요일 날 개념인강 1강을 듣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에 개념서로 1강에 해당하는 파트를 공부합니다. 이때는 개념서에 나온 공식유도 과정을 백지에 스스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상위권 분들이라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때, 내용을 그대로 베껴 적는 손묵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백지복습이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백지에 안보고 적는 방법입니다. 절대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자기가 머릿속에 내용을 넣고 그걸 떠올려서 백지에 적는 것이지 그냥 보고 받아 적으면 효율제로입니다. 그리고 백지복습할 때, 남에게 가르쳐주듯이 속으로 말하면서 공부하면 공부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양이 적다고 생각되시면 화요일 날 개념인강을 2개 듣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능동적인공부, 자기만의 공부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개념서로 예습을 하시고 화요일에 그에 해당하는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인강교재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인강교재에 필기한 내용을 백지복습 해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문제집에 있는 화요일 인강을 들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푹니다. 이때는 많은 문제를 풀 필요는 없기에 문제 양이 적은 수능기출풀리x를 앞에서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인강 1개씩 진도를 나간 다고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개념서 예습	1강 인강	1강 문제	1강 복습	문제집 풀기		
	개념서 예습	2강 인강	2강 문제	2강 복습	문제집 풀기	
		개념서 예습	3강 인강	3강 문제	3강 복습	문제집 풀기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앞에서 공부법을 100% 따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인강을 듣고 3일치 복습을 하는 예를 들었는데 복습을 3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쉬운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면 저기 위에 3일치 복습을 하루에 다 하시면 되고,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면 개념서 복습을 추가하면 됩니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공부가 아닌, 자신에게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표 대로 공부를 하다보면 인강을 듣느라 복습을 못하는 날이 올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인강으로 진도 나가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강을 하루 미뤄서라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인강을 미뤄야지 복습을 미루면 안 됩니다.

인강교재와 문제집에 나오는 수학문제를 푸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념을 끝내고 바로 수능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개념을 공부해주세요.

- 개념 공부법 (4등급 이하)

이 글을 읽고 계신 4등급 이하의 학생분. 지금 수학 성적 상승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급에서 1등급까지 오르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절대 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앞의 글을 읽어오셨다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수학 성적 상승은 정~~말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면 됩니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1.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방법이 잘못 되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학생이, 노력은 대한민국 최고인데 방법이 잘못 되어서 성적이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는 학생입니다. 수학성적상승을 간절히 바라는, '노력'이 준비된 분들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수학 개념서, 고등수학 인강, 수학 개념서, 개념인강, 문제집을 가지고 개념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고등수학 개념서 추천: 수학의 바이x, 수학의 정x) (고등수학 인강 추천: etoox 정승x) (개념서 추천: 수학의 바이x, 숨마쿰라우x) (문제집 추천: 4~6등급-자이스토리 2.3점 문제들만, 6등급 이하-썸).

여기서 말하는 고등수학 개념서와 고등수학 인강은 고등수학(상), (하)를 의미함

수학 개념서와 개념인강은 수1, 수2, 미통기, 적통, 기백 인 정규 커리큘럼을 의미함

여기서 만약 다른 과목공부로 인해 시간이 없다면 4~5등급대 분들은 고등수학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등수학을 병행하는 이유는 수능에 고등수학의 개념이 다른 단원과 결합하여 4점 문제가 출제되고, 수1~기백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수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등수학을 혼자 독학하는 건 명백한 시간낭비입니다. 고등수학에서도 수능에 필요한 개념이 있고 필요 없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분을 스스로 할 수 없기에 15강 내외의 고등수학 인강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수학을 공부할 때는 개념서로 예습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인강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개념서로 공부를 합니다. 개념서는 처음부터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강에서 배운 부분을 찾아

서 그 부분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분량은 일주일에 인강 2~3개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4등급이하 6등급이상의 분들은 고등수학과 수1부터의 정규 진도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수학은 ‘부’공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수학에 대한 문제는 인강교재에 있는 1~2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리고 7등급이하의 분들은 고등수학‘만’ 진행해야 할 겁니다. 고등수학공부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수학에 해당하는 문제풀이까지 추가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다져나가야 수1부터의 공부가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수학 공부는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고등수학인강 1강	1강 개념서 복습	인강교재 복습		
		고등수학인강 2강	2강 개념서 복습	인강교재 복습

여기에 7등급이하의 분들은 인강교재를 복습한 다음날에, 개념서에 있는 배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주의! 고등수학을 전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강에서 배운 파트만 찾아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물론, 분량과 복습횟수는 본인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렵다고 느끼면 복습을 늘리면 되고 쉬운 부분을 공부하면 복습을 줄이면 됩니다. 능동적인 공부!! 본인에게 최적화된 공부를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정규 진도를 나가는 법은 이와 비슷합니다. 고등수학과 다른 점은 인강을 듣기 전에 예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방식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개념’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식 따위의 것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은 공식이 아닙니다.

개념공부는 공식 암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공부해야지 수학 실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보셨다면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분명 삼각함수 공식 외웠는데 문제는 풀리지 않는, 분명 수열을 공부했는데 새로운 수열문제를 보면 접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요.

이제는 개념에 대한 관념을 깨고 개념공부를 해야 합니다.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개념이라는 것을 억지로 정의해보자면 ‘공식까지의 도달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까지의 과정을 알게 되면, 공식만 알았을 때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접근 방법들이 보이게 되는 이른바 ‘실전개념’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물론 공식까지의 과정 외에도 ‘실전개념’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인강을 듣거나 문제풀이를 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식까지의 과정을 알아야 인강에서 설명하는 내용의 흡수력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실전개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개념인강 1강을 듣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에 개념서로 1강에 해당하는 파트를 예습합니다. 이때는 개념서에 나온 공식유도 과정을 백지에 스스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때, 내용을 그대로 베껴 적는 손목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백지복습이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백지에 안보고 적는 방법입니다. 절대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자기가 머릿속에 내용을 넣고 그걸 떠올려서 백지에 적는 것이지 그냥 보고 받아 적으면 효율제로입니다. 그리고 백지복습 할 때, 남에게 가르쳐주듯이 속으로 말하면서 공부하면 공부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양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예습을 2일에 걸쳐서 진행하면 되겠죠?

능동적인공부, 자기만의 공부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개념서로 예습을 하시고 화요일에 그에 해당하는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인강교재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인강교재에 필기한 내용을 백지복습 해봅니다. (베껴 적지 마세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문제집에 있는 화요일 인강을 들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푼다. 이때는 많은 문제, 여러문 문제를 풀 필요는 없기에 자이스토리 2~3점짜리 문제들이나 썸을 앞에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인강 1개씩 진도를 나간 다고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개념서 예습	1강 인강	1강 문제	1강 복습	문제집 풀기		
	개념서 예습	2강 인강	2강 문제	2강 복습	문제집 풀기	
		개념서 예습	3강 인강	3강 문제	3강 복습	문제집 풀기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개념이 어려우면 예습이나 복습시간이 지연되므로 스케줄이 밀릴 수 있는데, 그러면 변형을 알아서 능동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인강으로 진도 나가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강을 하루 미뤄서라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인강을 미뤄야지 복습을 미루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개념서 예습	1강 인강	1강 문제	1강 복습	문제집 풀기		
	개념서 예습		2강 인강	2강 문제	2강 복습	
			개념서 예습	3강 인강	3강 문제	3강 복습

이건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수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 맞게 능동적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강듣고 복습을 3일 잡아뒀는데, 3일을 복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파트 공부할 때는 복습 일자를 줄이면 되고, 어려우면 복습을 늘리면 됩니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공부가 아닌, 자신에게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개념을 끝내고 바로 수능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개념을 공부해주세요.

개념을 끝내고 바로 수능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개념을 공부해주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해주세요.

- 문제 푸는 법 (답지 보는 법)

문제 푸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답지를 활용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강교재에 있는 문제나 기출문제와 같은 수학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실전모의고사가 아닌 이상, 그냥 수학문제 풀 때는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노력’을 안하게 됩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 “그런가보다”라는 안일한 태도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실전처럼 문제를 풀 때만큼 ‘긴장’하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힘들면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수학문제를 풀 때는 5~10문제씩 풀고 채점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6번까지 풀고 채점하겠다고 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다가 4번에서 막히면 1분정도 고민하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6번까지 푼 다음에 채점을 합니다. 물론 못 풀거나 찍은 문제는 정답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가 왔습니다.

일단 절대 바로 답지를 보지 않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 가시 고민합니다. 이때 저는 1~10분 사이로 문제의 성격마다 고민하는 시간을 달리 했습니다. 솔직히 이러다 풀리면 기분 개 좋습니다.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고민하다가 답지를 보게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겠다고 느낄 때만 해설을 보세요.

아니면 고민하다가 언젠간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해설을 보게 되었을 때는 해설의 전부를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이 막혔던 부분을 먼저 해설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그다음 1~2줄만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막혔던 부분에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세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넘어 가는구나” “이런 표현은 이렇게 해석해야하는구나”라고 본인이 스스로 깨달으면 됩니다. 그 문제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절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연결고리’가 다른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그게 ‘출제의도’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1~2줄만 읽으셨으면 해설을 덮으시고 막혔던 부분부터 다시 풀어나가세요. 해설을 끝까지 보면 안 되고 ‘막혔던 부분’만 체크하고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막히면, 또 고민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똑같이 해설 1~2줄만 보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그 과정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속의 ‘연결고리’들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설을 보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해설을 끝까지 보게 되면 자신이 모르는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놓치게 되고, 그 연결과정이 수능에 출제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틀린 문제들을 고치면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맞은 문제들에 대한 내 풀이를 해설지와 비교합니다. 해설과 내 풀이가 똑같다면 복습을 하는 셈이 되고, 만약 다르다면 새로운 접근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풀이를 복습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과 더 빠른 풀이를 배우는 것은 절대 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익한 플러스 알파공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수학문제를 풀고 페이지를 넘길 때, 항상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혹시 놓친 포인트가 없나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풀지 않을 수 있는 풀었던 문제들에서 내가 놓친 연결과정이 숨어있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지나가는 수학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를 살면서 다시는 못 보게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초집중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새롭게 배운 연결 과정들을 문제에 필기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필기한 내용들을 노트에 ‘요약’하면서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되뇌어보았고, 그 다음날에는 노트에 필기한 내용을 눈으로 다시 한 번 스캔하며 문제를 회상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노트복습법’을 수학영역에서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100%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론 - 영어영역 공부법 >

- 개념 공부법 (3등급 이상)

3등급 이상의 학생들에게 맞는 개념 공부 커리큘럼과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구문'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문'은 syntax라고도 하며, 쉽게 말하면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독해나 문법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점수가 안 나와서 이 시기에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구문강의를 2개 들으시는 게 나중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의 1개로 공부해도 제 방식대로 공부하면 양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구문공부로 3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1. 해석능력 (Eccuracy + speed) - 정확성만이 해석능력이 아닙니다!!
 2. 문법 - 문법은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더 이상 스킬에 현혹되지 마세요.
 3. 시간단축 - 한 문장이 막히면 멈춰서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추상적인 지문일수록 앞 내용을 까먹고 처음부터 글을 다시 읽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시간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는 수업이나 인강을 추천해드리고, 혼자 책을 보며 독학으로 구문공부를 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필기나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책에 써져있는 글자를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구문 강의도 역시 예습과 복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리 강의에서 해줄 문장을 해석해보고 단어도 찾아보며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필기를 하고, 복습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복습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문강의에서 강조하지 않지만 구문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구문강의는 '원하는 속도'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강의를 듣고 해석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해도 절대로 바로 실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체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확성+속도를 향상 시켜야 실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문 책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한 줄당 1초정도의 속도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합니다. '원하는 속도'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점수상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처음에 바로 1초의 속도로 읽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처음 인강을 들을 때는 1~2초정도를 목표로 잡으시고, 인강을 완강한 다음에 1강부터 다시 한번 더 인강을 들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인강 1강당 복습을 4~5일 정도 했는데, 복습의 분량은 본인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구문을 3강 듣는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강 예습	1강 인강	1강 복습	1강 복습	1강 복습	1강 복습	1강 복습
		2강 예습	2강 인강	2강 복습	2강 복습	2강 복습
				3강 예습	3강 인강	3강 복습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습할 때는 교재에 필기가 되어 있어서 해석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교재를 하나 더 구입하시거나 미리 복사를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인강 교재는 잃어버렸다고 하면 교재 1권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복습할 때는 필기가 안 되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강의에서 해준 내용을 떠올려보고, 해석이 완벽하게 되었다면 시간 단축을 목표로 계속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문 공부를 하다가 EBS교재가 나오는 순간부터 EBS와 구문을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구문공부가 끝나고 바로 수능을 본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구문을 씹어 먹으면서 공부하세요. EBS공부법은 뒤에서 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능영어의 난이도가 매우 쉽기 때문에 구문 공부가 끝나셨다면 다른 과목의 성적에 따라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전 과목의 점수가 골고루 좋아야 하므로, 다른 과목이 완벽하시다면 영어는 '논리독해'를 추가로 배우셔야 하고, 다른 과목이 불안하시다면 당분간은 영어는 EBS만 하시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름에 논리독해를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현 교육부의 지침과 여러 정책을 감안했을 때, 2016학년도 영어영역의 시험이 쉬울 확률은 100%이므로 전략적인 공부를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난이도에서도 1등급이 아닌 '안전한 만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논리독해'라는 것을 배워야합니다. 먼저 독해=해석 이 절대 아닙니다. 독해능력은 해석능력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오답률 1,2위 지문들은 2분 안에 100%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단어를 알아서 해석을 했다고 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아무리 많이 외워도 시험에는 모르는 어휘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구문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는 해석이 까다로운 문장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구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해석'이 빠르게 되어도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문장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해결법이 논리독해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완벽하게 해도 지문의 주제를 바로 말할 수 없는 지문(ex.14학년도 수능영어 수학과학 관련지문)이 나오는 이유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 때문입니다.

1. paraphrasing(유사개념어) - 같은 뜻, 다른 어휘(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2. metaphor(비유적표현) - 고도의 비유적 표현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음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3. 생략구조 - 영어는 내용의 부분적인 생략이 발생합니다. 이 생략된 부분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역시 글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논리독해는 간단히 말해서 '내용의 일관성' '하나의 지문에 주제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논리적으로 추론해가며 읽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해드리면 이 글의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자세한 내용은 논리독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OT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D사 은선x선생님의 강의를 좋았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에 대한 공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고려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100% 통하는 '문법공식'같은 것이 절대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문을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문법문제가 사실 해석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개념 공부법 (4등급 이하)

4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 맞는 개념 공부 커리큘럼과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종합영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문장형식, 독해, 문법 등을 가르쳐주는 강의나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인강은 아마 기초나 종합이라는 이름으로 개강을 할 겁니다. 이때는 문제풀이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베이스를 단단하게 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어와 종합인강으로 4등급 초반까지의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4등급 초반의 점수가 안 나온다면 단어를 안 외웠거나 기초가 부족한 것이므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단어 외우는 법은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종합영어를 공부할 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예습과 복습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단어와 종합영어 공부에 치열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봐야 합니다. 영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계~속 보셔야 합니다.

'구문'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문'은 syntax라고도 하며, 쉽게 말하면 해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독해나 문법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점수가 안 나와서 이 시기에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구문강의를 2개 들으시는 게 나중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의 1개로 공부해도 제 방식대로 공부하면 양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구문공부로 3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2. 해석능력 (Eccuracy + speed) - 정확성만이 해석능력이 아닙니다!!

2. 문법 - 문법은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더 이상 스킬에 현혹되지 마세요.

3. 시간단축 - 한 문장이 막히면 멈춰서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추상적인 지문일수록 앞 내용을 까먹고 처음부터 글을 다시 읽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시간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는 수업이나 인강을 추천해드리고, 혼자 책을 보며 독학으로 구문공부를 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필기나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책에 써져있는 글자를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구문 강의도 역시 예습과 복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리 강의에서 해줄 문장을 해석해보고 단어도 찾아보며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필기를 하고, 복습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복습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문강의에서 강조하지 않지만 구문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구문강의는 '원하는 속도'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강의를 듣고 해석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해도 절대로 바로 실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체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확성+속도를 항상 시켜야 실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문 책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한 줄당 1초정도의 속도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원하는 속도'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점수상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처음에 바로 1초의 속도로 읽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처음 인강을 들을 때는 1~2초정도를 목표로 잡으시고, 인강을 완강한 다음에 1강부터 다시 한번 더 인강을 들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인강 1강당 복습을 4~5일 정도 했는데, 복습의 분량은 본인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구문을 3강 듣는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강 예습	1강 인강	1강 복습	1강 복습	1강 복습	1강 복습	1강 복습
		2강 예습	2강 인강	2강 복습	2강 복습	2강 복습
				3강 예습	3강 인강	3강 복습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습할 때는 교재에 필기가 되어 있어서 해석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교재를 하나 더 구입하시거나 미리 복사를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인강 교재는 잃어버렸다고 하면 교재 1권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복습할 때는 필기가 안 되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강의에서 해준 내용을 떠올려보고, 해석이 완벽하게 되었다면 시간 단축을 목표로 계속 복습하시면 됩니다.

구문공부가 끝나고 바로 수능을 본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구문을 씹어 먹으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구문에 집중해야 하므로 EBS교재는 3~4월부터 푸는 것이 좋을 겁니다. EBS공부법은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문과 EBS를 병행하다가 구문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과목의 점수를 고려해서 본인이 스스로 영어영역 커리큘럼과 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EBS 활용법

대한민국 수능영어시험은 왜곡되어있습니다.

수능영어에서 EBS 반영에 대한 위력과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현역 분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먼저 현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인 EBS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9,수능에서 영어 오답률 1위는 바로 비연계가 아닌 EBS 연계문제였습니다. EBS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와도 오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평가원이 비연계 문항을 어렵게 내는 방법은 어려운 지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EBS 연계문제는 지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가원은 EBS 연계문제를 만들 때 지문대신 '선택지'를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선택지로 학생들을 낚는(?) 것이지요.

가끔 몇몇 영어선생님들께서 EBS공부를 하지 말고 순수한 '영어실력'을 쌓아서 시험을 봐야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수능영어시험은 왜곡되어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EBS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연계문제를, 1등급들도 헛갈리게 만드는 매력적인 오답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수능은 시간과 멘탈관리 싸움입니다. 시간을 딱 맞게 푸는 사람과 20분을 남기고 푸는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100점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실수의 확률이 줄어든다 다시 검토할 시간도 충분하므로 100점을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오답률1위의 문제를 포함한 70% EBS연계문제들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으므로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안정감은 뒤에 있는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적용되므로 100점 맞을 확률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수능은 화를 싸움입니다.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대비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가정하여 불안요소를 최소화 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앞에서는 EBS를 공부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해드렸습니다. EBS에 대해서 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지만, 더 이상은 글의 목적에 벗어나므로 EBS공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D사의 고정x선생님의 EBS강의 OT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EBS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BS공부는 3등급 이상은 교재 나오자마자 바로, 4등급 이하의 조금 있다가 4월 정도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먼저 EBS를 풀니다.

이때는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풀어주세요.

2. EBS 정독

시간재고 푸느라 대충 읽었던 문장을 천천히 스스로 정독해봅니다.

3. 채점

틀렸다고 너무 자책은 안하셔도 됩니다. 문제 퀄리티가 발췌이라서 틀리면 그러려니 하세요.

4. 해설지보고 해석연습

해석본과 지문을 비교해보면서 해석을 연습하세요.

5. 한 줄 요약 - 4등급 이하의 여기까지

지문의 주제를 지문 위에 간단하게 한글로 요약하세요.

6. 변형문제 만들기 (볼펜으로 EBS교재에 표시해두기) - 3등급이상만 해당

EBS의 지문을 빈칸, 순서, 삽입, 연결사 문제로 변형해보세요. 물론 한 지문을 4가지 유형으로 모두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문을 4가지 유형 중에 변형이 가능한 몇 개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칸: EBS에 나온 지문을 처음 빈칸문제로 변형해보시면 꽤 어려울 겁니다. D사의 고정x선생님의 EBS강의 OT에 평가원이 EBS연계빈칸문제 만드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 한글 해석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글이 딱 4등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연결사: 한 지문에 연결사가 2개 이상 나오면 후보가 됩니다. 물론 두 연결사 사이에 한, 두 줄의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삽입: 빠지면 안 되는 문장입니다. 넣어도 말이 되고, 빼도 말이 되는 문장은 후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형문제를 만들면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면서 출제자의 마인드도 추론해볼 수 있고, 지문을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너무 오랫동안은 하지 마시고, 지문 난이도에 따라 지문당 2~4분정도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 주에 푼 EBS지문들을 한 번 쪽 읽어보시면서 가볍게 복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 EBS 사설인강 듣기 - 모든 등급 해당

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D사 고정x선생님 수능기밀유x이라는 강의듣고 지렸습니다...

물론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EBS요약+변형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지문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선생님의 변형 출제 포인트가 자신과 일치했는지 맞춰보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출제 포인트들을 자기가 만들 때와는 다른 색의 볼펜으로 EBS교재에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 주에 들었던 EBS인강에 대한 복습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복습의 횟수와 요일은 상관없습니다. '복습'만 하면 됩니다.

- 단어 외우는 법

저는 영어학원이나 학교에서 보는 단어테스트를 보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단어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 주에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똑같은 시험지로 다시 시험을 보면 전 주와 같은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하던 저는 긴 시행착오 끝에 '단어도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어 공부도 복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에 써져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서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고 졸립니다. 따라서 저는 단어장을 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저만의 단어장을 매일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80~120개 정도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장을 하루도 안 빠지고 수능 전날까지 만들었습니다. 단어장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각종 교재, 개별 단어장 등등에 나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어장을 만들면서 매일 4일치씩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에는 월,화,수,목요일 날 만든 단어장을 외우고, 금요일에는 화,수,목,금요일 날에 만든 단어장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안 보게 되는 월요일 단어장은 목요일 저녁에 시험보고 틀린 단어들을 금요일 단어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안 외워지는 단어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효율적으로 단어를 외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방법을 100%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스스로 공부법을 만들되, '복습'과 '반복'이라는 큰 틀은 꼭 지켜주시면서 단어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3가지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거라고요.

1. 인강과 수업은 절대 공부가 아니다.
2. 평균이 되지 말자. 제발 반복하자. 복습하자. 여러 날짜에 걸쳐서.
3.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자

이 3가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제 글을 완벽하게 파악하신 겁니다.

이제는 실천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누적 복습, 연습 하는 거
솔직히 귀찮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서 답답하구요..

그래서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은 공감정도만 하고
제대로 시행 못할 거라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글을 몇 명 정도가 읽어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한 분이라도,
천명이 넘는 분들 중에 딱 한 명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지켜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글의 목적과 취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으면 평균이고, 평균이면 점수유지입니다.
귀찮은 걸 해냈으니까 평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지 않았으니까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